

中企 적합업종 16개 품목 발표

LED 등은 제외 … 프레스금형 포함 광주 300여 업체 새 전기

금호타이어 “영향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플라스틱·프레스 금형과 재생타이어, 장류 등 1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의 주력 생产业인 LED(발광다이오드)와 데스크톱PC, 레이저 등 대·중소기업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일단 제외됐다. 이를 품목에 대해서는 10월께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반위가 이날 발표한 적합업종 1차 품목은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자동차제조부품,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뼈, 기타 인쇄물, 절연전선, 아스콘 등 16개다.

동반위는 이를 품목을 권고 정도로 따라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우선 세탁비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사업이양’ 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고체형 세탁비누 사업을 포기할 방침이다.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자동차제조부품은 국내 시장의 대기업 신규 사업을 자체토록 하는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첨단산단 내에 설립한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는 제품 개발용 신금형 기술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가금형 분야의 예외조항이 적용돼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품목	
분류	품목
사업이양 세탁비누	대기업 단계적 철수
골판지상자	신규진입 확장 자체
진입자제	신규진입 확장 자체 프레스 금형 기술개발형 자가금형에 집중
자동차 재제조부품	진입자제 OEM 생산 권고
순대	사업확장 자체
장류(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조달시장 자체 저기사장 철수 권고
막걸리	내수시장 진출 자체 생산시설 활용 수출 전념 권고
떡	프랜차이즈 확장 자체
기타인쇄물	터키방식 OEM 발주 자체 권고
재생타이어	중소기업 OEM 생산 권고 생산량 점진 축소 권고
절연전선	중소기업 OEM 생산 권고
아스콘	사업확장 자체

다.

프레스금형이 적합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광주지역 300여 금형업체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광주시가 평동산단에 322억원을 들여 설립하는 ‘하이테크금형센터’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광주금형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총 9319억원(내수 6855억원, 수출 2464억원) 규모였다.

재생타이어와 순대, 장류, 막걸리, 뼈, 기타인쇄물, 절연전선, 아스콘은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을 자체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장류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

장에 대한 진입을 자체하고 저가 시장에서 철수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자체할 것을 권고했다.

막걸리 역시 대기업은 내수시장 진입을 자체하고, 수출 시장에 전념토록 했다. 막걸리 ‘순희’를 생산하는 보해양조는 전체 매출에서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 대부분 수출용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생타이어 사업에 진출, 연 5000개를 생산하는 금호타이어는 외국기업의 내수시장 잠식을 우려해 방어용으로 재생타이어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생산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현재 대호타이어 등 중소기업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두부나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등은 이날 1차 선정 품목에 제외돼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됐다. 동반위는 1차 검토품목 45개 중 이날 선정한 16개를 제외한 29개 품목에 대해 10월 중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LED 분야가 2차 품목에 선정될지 주목된다.

만약 LE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빠지게 되면 지난해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광주지역 130여 LED업체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 사상 첫 수출 200만대 300억弗 시대

현대기아차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200만대, 300억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현대기아차는 총 144만4천491대를 수출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6억달러에 달한다.

수출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128만 2327대)에 비해 13%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30%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수출 금액은 국내 전체 수출액인 3688억 달러의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8월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한 달간 대략 18만대가 넘는 차량을 해외로 내다 판매되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현대기아차는 연말에 200만대가 넘는 수출고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금액도 올해 들어 한 달에 평균 25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작년에 199만2천784대를 해외로 내다 팔아 불과 7000여 대 차이로 수출 200만대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연간 수출 금액은 253억달러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현대차 아반떼, 투싼X, 기아차의 K5, 스포티지R, 쏘렌토R 등 주력차종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판매대수 증가율에 비해 금액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보면 그동안 소형차 위주의 해외 판매가 점차 고급 차종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제값 받기 노력도 성과를 내면서 수익성도 높아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 코스피지수	1735.71 (+83.00)
▲ 코스닥지수	433.41 (+23.86)
▼ 금리 (국고채 3년)	3.46% (-0.05)
▼ 원·달러 환율	1173.10원 (-22.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금도 불안 경기침체 국면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연일 하락세다. 27일 (주)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소매가는 소비자가 살 때를 기준으로 3.75g(1돈)에 24만5000원으로 지난 22일(26만4000원)에 비해 1만9000원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모동 (주)한국금거래소.

/연합뉴스

전남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건의

전남도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이를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까지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 건설업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국 도급순위 100개 업체 중

이 지역 건설사는 6곳에 불과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일정시기까지 최저가 낙찰제 폐지나 유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지역 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된다면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이나 자가투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초래가 우려돼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8월 무역수지 5억달러 흑자

수출 50억6400만달러·수입 45억4200만달러

광주·전남지역의 8월중 무역수지가 5억2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7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분석한 ‘2011년 8월 광주·전남 무역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4.4%가 증가한 50억 64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한 45억4200만달러로 무역수지 5억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월 중 EU 무역거래는 주요 품목이 전자제품을 포함해 수출 4억달러, 수입 7000만달러로 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이 전달보다 73.4% 증가하는 등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의 수출은 전달보다 4.8% 감소한 10억6800만달러, 수입은 12.2% 감소한 4억2400만달러 쪽

자를 보았다. 품목별 수출은 기계류와 정밀기기(9%), 수송장비(33%), 가죽·고무 및 신발류(10.8%) 등 주요 품목이 각각 11.4%, 10.4% 늘었으나 중동, 호주 수출이 1.1%, 68.6%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경부, 46개사 선정

지식경제부는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재성산업 등 46개사를 선정하고 27일 서포스터티워에서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으나 기술개발 잠재 역량과 의지를 갖춘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일대일 개별면접을 도입하는 등 실무면접이 강화됐다. 대한항공은 앞서 여름방학기간 ‘대학생 인턴’을 공개 모집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중 40여명을 채용했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친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투숙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신동 367-12